

올 상반기 외식업 배달 매출 급증 광주 증가율 전국 두번째로 높아

7조8719억 전년 동기 6.55% 증가
패스트푸드 늘고 한식은 줄어

요식업 매출 전국 유일 광주만 늘어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에도 올 상반기 외식업 배달서비스 매출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엔데믹 이후 외출 및 외식이 자유로워지면서 쇠락했던 외식업 배달서비스 매출은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각종 외식업계에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인공지능(AI)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은 19일 '상반기 전국 외식업 배달서비스(배달+포장) 현황'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배달서비스 매출은 7조87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5%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패스트푸드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올 상반기 패스트푸드 배달서비스 매출은 1조

722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037억원)보다 22.72% 증가했다. 이 밖에도 베이커리(15.51% ↑)와 치킨·닭강정(10.50% ↑) 배달서비스 매출이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외식업계 가운데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한식의 경우 배달서비스 매출이 1조9100억원으로 1년새 2.17% 줄었다. 배달서비스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치킨·닭강정(45.32%)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패스트푸드(36.60%), 퓨전·세계요리(17.91%)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시는 배달서비스 매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이 전년에 견줘 12.26% 올라 올 상반기 기준 배달서비스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10.20%), 경기(9.69%)가 뒤를 이었다. 배달서비스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서울의 경우 1%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시가 올 상반기 배달서비스 매출이 증가율

이 컸던 것은 전반적인 외식업 매출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픈업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 엔데믹 및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전국적으로 외식업계가 침체된 가운데, 광주시만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 외식업 매출은 지난 7월 기준 2275억원으로 전월보다 0.7% 올랐다. 반면, 강원(-5.58%), 경기(-4.94%), 서울(-4.76%) 등 16개 시도는 모두 내렸다.

광주시 역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한식(1104억원)이 전월 대비 0.17% 감소했지만, 기타음식점(+33.51%), 패스트푸드(+7.04%), 카페·커피·차집(+5.97%), 일식(+4.4%), 뷔페(+4.36%), 치킨·닭강정(+1.48%), 분식(+0.29%) 등이 올랐다.

핀다 관계자는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외식업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배달서비스 매출은 호조세를 보였다"며 "외식업 창업 등에 앞서 지역 및 업종, 현 추세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프랑스 아웃도어 살로몬 만나보세요" 19일 광주신세계 신관 지하 1층 '살로몬' 매장에서 직원들이 다양한 의류와 신발 등 아웃도어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살로몬은 지난 13일 광주신세계에 문을 열고 등산과 트레일 러닝 등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프리미엄 신발과 의류, 스키 등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살로몬은 오는 22일까지 오픈 기념으로 30만원 이상 구매 시 스포츠 타올, 서바이벌 블랭킷, 반디나 등 하나를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이마트24, 이달까지 포스트 추석 할인행사

봉지과자·라면 등 30%까지 할인

이마트24가 추석 연휴 종료와 함께 봉지과자와 라면 등 다양한 상품들을 대거 할인하는 '포스트추석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매년 명절 직후 받은 성과금과 용돈 등으로 각 연령층의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이마트 24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봉지과자와 봉지라면에 대해 할인 및 페이백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봉지과자 전 품목은 행사카드(NH농협·우리·KB국민)로 7000원 이상 결제시 30% 할인판매한다. 봉지라면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로 5000원 이상 결제시 결제 금액의 30%를 현금처럼 이용가능한 포인트로 돌려준다.

또 같은 기간동안 리얼샷 레몬하이볼, 코슈하이볼 등 하이볼류는 3캔 당 1만 2000원, 10종과

잡밤하이볼, 리얼레몬샷하이볼 등 16종은 4캔에 1만 2000원에 판매한다. 해당 상품들을 행사카드(현대)로 전액 결제시 각각 76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매달 24일 가격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24데이'도 열린다. 오는 24일에는 서울우유, 맛있는우유GT, 매일우유 등 수요가 높은 흰 우유(900ml·1l) 3종을 행사카드(신한)로 결제시 25% 할인된 24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또 옥수수수염차, 하늘보리, 17차 등 차 음료(500ml) 베스트 3종은 2+4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카드로 결제시 차 음료 6개를 4000원에 구입 가능하다.

이마트 24 관계자는 "명절 직후 소비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에 이마트24를 찾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자카르타 소비재전 참가

131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9일 이달 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4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해 131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무역협회가 주최한 이번 전시회에 전남도 우수 중소기업 10개사가 참가해 전통 식품과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지역기업 '해어름'은 전일염 제품을 선보여 1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해어름 전일염은 현지 바이어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추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봤다는 평가다.

또 좋은영농조합법인과 대륙식품, 동서산업, 영산흥어 등도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좋은영농조합법인은 배와 사과로 만든 음료로 5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대륙식품은 김, 동서산업은 친환경 생활용품인



클라우드칩, 영산흥어는 반려동물 간식 및 화장품 분야에서 각각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이번 전시회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 진출 가능 여

부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다양한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3년 이상 '쉬는 청년' 8만2천명

장기 미취업자 3명 중 1명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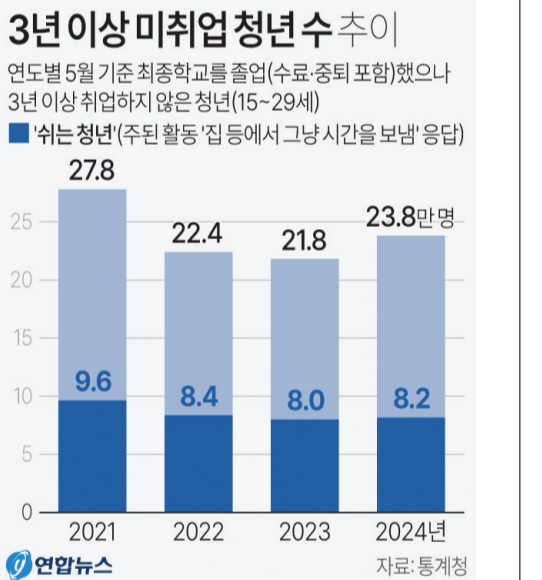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 감소하다 증가 전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직업 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쉬' 청년이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종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8000명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2022~2024년) 중 가장 큰 수치다.

이들 중 주된 활동으로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청년은 8만2000명(34.2%)이었다.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직업 훈련이나 취업 시험 준비, 구직활동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다. 이어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했다' 28.9%(6만9000명), '육아·가사를 했다' 14.8%(3만5000명), '진학 준비를 했다' 4.6%(1만1000명) 등의 순이었다.

미취업 기간별로 봤을 때 '집에서 그냥 쉬' 청년의 비중은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다. 그냥 쉬었다는 응답은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20.5%에서 6개월 이상~1년 미만일 때 26.4%로 상승했다.

1년 이상~2년 미만에서는 20.6%로 비중이 줄었다가 2년 이상~3년 미만은 30.3%, 3년 이상일 때 34.2%로 상승했다. 학교를 졸업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김치 냄새 걱정 끝"...삼성전자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 출시

성에 자동 제거 'AI 정온' 기능 적용

삼성전자는 19일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형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는 AI가 사용 패턴을 분석, 냉장고를 자주 사용하지 않을 때 성에 제거를 수행하는 'AI 정온'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

내부 온도 편차를 ±0.3도 이내로 유지하는 초미세정온 기술과 AI 정온 기능을 통해 냉장고의 온도 유지 기능을 강화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또 냉장고 속 김치 냄새 걱정을 덜어주는 '냄새 케어 김치통'을 새롭게 선보였다.

냄새 케어 김치통은 김치가 숙성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가스 밸브와 가스 흡수 필터로 관리해 통 밖으로 김치 냄새가 새어나가는 것을 최소화한다.

김치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김치의 맛과 유산균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일정 농도 이상 축적되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 냄새가 새어나간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적용한 가스 밸브 장착 김치통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을 때 일시적으로 가스 밸브가 열려 가스 흡수 필터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도록 설계됐다.



삼성전자 모델이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스마트싱스 앱을 활용한 스텝킹 기능도 신규 탑재됐다. 김치 포장지의 바코드를 인식해 가장 적합한 보관 모드를 설정하는 기능이다.

과일, 곡물, 육류 등 총 500개의 식품을 맞춤 보관 모드로 저장할 수 있는 '식재료 맞춤 보관' 기능도 스마트싱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가벼운 접촉으로 냉장고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오토 오픈 도어', 냉장고 밥기 조절을 선택하는 '젠들 라이더' 등 편의 기능도 추가됐다.

24년형 비스포크 AI 김치플러스는 총 9개 패턴 중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출시일은 오는 20일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기능인들 국제기능올림픽 금3·은2 수확

광주지역 숙련 기술인들이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3개 등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5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47개 직종에 출전, 금메달 10개와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우수상 11개를 수확해 종합 2위에 올랐다.

특히 광주시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9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광주지역 국가대표 선수단이 획득한 직종은 모바일로보틱스, 산업제어, 메카트로닉스, 클라우드 컴퓨팅, IT네트워크시스템 등으로 올해 치러진 2024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성과에 이어 'AI도시 광주'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폭염에 채소값 급등...배추 한 포기 9천원 넘어

1년 전보다 70% 비싸

이달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이 19일 9000원을 넘었다. 이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가격은 포기당 9337원으로 올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69.5% 비싸고 평년보다 32.7% 높다.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 이날 배추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추석 성수기 진행한 정부와 유통사의 할인 지원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배추 소매가격은 추석 성수기 할인 지원이 진행된 지난 6월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 포기 7000원 대로 오르긴 했지만 13일에는 8000원대로 뛰었다. 9월에도 고온이 이어지는 데다 일부 재배지에서

가뭄이 겹치면서 품질이 높은 상품이 귀해져 가격이 크게 뛰면서 평균값을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배추 외에도 날씨 영향에 채소값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무 소매가격은 1개에 3천826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65.4%, 38.8% 비싸다./연합뉴스

↑ 코스피	2580.80 (+5.39)
↑ 코스닥	739.51 (+6.31)
↑ 금리(국고채 3년)	2.843 (+0.021)
↓ 환율(USD)	1328.35 (-1.15)